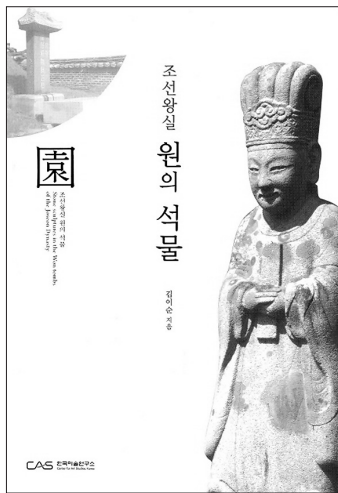


김이순 저,
『조선왕실 원의 석물』
(한국미술연구소, 2016)

황정연(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왕릉(왕실 園·墓 포함)은 한국인의 삶과 죽음에서 비롯된 묘제 및 의례와 밀접하게 연계된 대상으로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중요한 문화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유산이다. 그러나 墳墓라고하면 고고학적 발굴이 우선시 되었고 건축물이나 석물 등 외관에 대해서는 큰 가치를 두지 않았던 탓에 조선왕릉이 오랫동안 학계의 관심 밖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후 2009년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약 10여년의 짧은 기간 동안 한국사, 미술사, 건축사, 조경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왕릉'이라는 단일 주제로 성과물이 급증했고 국가차원의 현황 파악도 함께 이루어졌다. 그 결과 조선왕실의 禮制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대상으로서 왕릉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어 오고 있다.

그럼에도 陵·園·墓로 구성된 조선왕실 능묘제도의 연원과 특성, 상호간의 관련성에 대해

1 김이순, 「조선왕실 무덤, 園의 창안과 전개」, 『美術史論壇』第41號(2015.12), pp. 87-112.

서는 정밀한 연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아쉬움을 극복하고 조선왕실 능원제를 학술적으로 처음 체계화시킨 저서가 최근에 발간된 김이순 교수의 『조선왕실 원의 석물』이다. 이 책은 저자가 2015년 조선왕실 園에 관해 쓴 논문을 증보하여 한 권의 단행본으로 발간한 것이다. 김이순 교수는 이미 『대한제국 황제릉』(소와당, 2010) 등 미술사학적 방법론을 적용한 본격적인 왕릉 연구서를 출간한 바 있으며, 이번에 간행한 책 역시 유사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조선왕릉 연구의 외연을 넓히고자 시도된 두 번째 저작물에 해당한다.

조선시대에는 왕과 왕비의 무덤은 '陵'으로 부르고 경역과 석물의 수, 건축물의 규모에 있어 기타 왕족들의 무덤과 차별화한 반면, 인조연간(1623~1649)부터는 국왕의 私親과 보위에 오르지 못한 왕세자의 무덤을 '園'으로 별도 지칭하면서 비로소 園이 등장하였다. 園은 비록 陵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조선의 독창적인 능묘제도일 뿐 아니라 피장자에 대한 후대의 평가와 정치적 변동, 조선왕실 조각사 등이 반영된 또 다른 역사적 산물이다.

저자는 이러한 조선왕실 園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종합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조선시대 園制에 대해 규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국 고대 墓葬 명칭 속에서 園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漢代~清代에 이르는 園級 무덤의 변화, 그리고 조선에서 園制의 전개, 현존하는 13기 원(1970년에 조성된 영친왕의 英園과 2005년 조성된 李玖의 懷仁園은 제외)에 대한 개별 고찰 순으로 다루었다.

이 책을 통해 저자가 밝혔거나 강조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조선이 중국에서도 명확하게 전통이 성립되지 않은 園을 고유의 기준을 가지고 조성한 경위에 대해, 부모에 대한 崇慕와 왕위계승의 정통성이 무엇보다 중요시된 시대적 특수성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조선에 원을 공식적으로 조성하게 된 계기는 반정으로 등극한 인조에 의한 흥경원(興慶園)·육경원(毓慶園) 조성이 첫 사례이며, 이후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부여받고자 한 영조에 의해 園制가 새롭게 규범화되기에 이른다. 그밖에 원의 주인공들이 모두 嬪자가 아니었거나 後宮이었다는 사실은 원이라는 제도가 왕실에 있어 이들의 상장례를 어떻게 규정하고 하고 위상을 어떻게 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결과였음을 보여준다.

다른 하나는 이 책의 제목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원의 구성물 중 석물을 대상으로 왕릉 석물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상세하게 조명한 것이다. 왕릉 석물은 改修 또는 재활용으로 인해 석물제작 시기가 능 조성시기와 불일치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나, 원의 경우 대부분 처음 조성 당시의 것이어서 시기별 기준을 삼기에 유용하다. 저자는 총 13기 원의 석물을 분석하여 順昌園(순회세자)처럼 세자묘에 토대를 둔 원의 석물은 제도와 석물양식이 왕릉의 것을 따랐지만, 綏慶園(영빈이씨) 등 묘에서 원으로 追封된 경우, 능과 묘의 절충양식으로 조성되었음을 규명하였다. 사묘

에 배치된 동자석이나 향로석이 일부 원에 놓인 사실은 원을 조성하는데 있어 묘제를 수용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러나 원의 석물이 묘제 석물과 연관이 있다 하더라도 왕실에서 감독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는 왕릉 석물과 기본적인 흐름을 공유하고 있으며, 저자의 분석 내용을 보면 이러한 점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결국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선왕실 園이 능과 묘의 중간급에 해당하는 형식상의 묘제로서가 아닌, 한국 능묘문화의 한 축을 이룬 의미 있는 현상이었음을 말해준다.

그동안 한국 능묘에 대해 풍수학적인 접근은 많았지만 세부 구성물을 인문과학적으로 종합분석한 시도는 최근에서야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김이순 교수의『조선왕실 원의 석물』은 관련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고문헌과 실제유물 조사를 병행한 이 분야 최초의 연구서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모든 선구적인 저작물이 그렇듯이, 저자 혹은 누군가의 후속 연구에 의해 오류가 확인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앞으로 이 책의 성과가 더욱 빛나기 위해서는 문헌 또는 실물에 기초한 조선시대 이전 園級에 해당하는 왕족들의 무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조선시대 私墓와의 비교를 통해 조선왕실 園制에 대한 역사적 전통을 명확하게 하는 일이 과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현존하는 園 중 일부는 1920~60년대 동안 遷葬된 것이므로 옮길 당시 본래 위치에 두고 온 석물이나 정자각, 비각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조성 당시 모습에 대한 접근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영월의 莊陵과 여주의 英·寧陵을 제외하고 조선왕릉과 왕족들의 무덤이 주로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분포하고 있어 답사도 편리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대부분 교통이 닿지 않는 후미진 곳에 위치해 있고 더욱이 陵上은 비공개 범위여서 능침석물을 상세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체력과 노력이 필요로 한다. 이 책에 실린 한국과 중국의 陵園 사진은 저자가 직접 답사를 통해 확보한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 사진작가의 보정된 화면에서는 보기 힘든 현장감과 유물 상세 컷이 풍부하다. 기성 도판에 익숙해 있는 후학들이 실물 확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는데 좋은 귀감이 되리라 생각한다.